



World

자살하는 미국 명문대생들

어떻게 참여하죠?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서 '이글루스로 보는 블로그 세상' 태그를 입력하면 이브닝에 전달됩니다. 태그는 띄어쓰기 없이 써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ebc.egloos.com

/6149를 방문하거나 haahaha@ieve.kr로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톱블로거에게는 서울 지역 전시·공연 티켓을 드리고 채택된 모든 분들에게 최근 신간 책 2권을 발송해 드립니다.

김중기기자 haahaha@ieve.kr

Snapshot



지켜보고 있습니다 CCTV 대신에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무엇을 감시한다는 걸까요. 순수 국내산 쌀을 사용한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주인의 센스에 괜히 웃음이 납니다. by enif enif.kr

People

할아버지를 보니 손녀를 알겠다

프랑크 카프라의 1946년 영화 '멋진 인생'을 보았습니다. 찰스 디킨스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의 영화 버전이라고나 할까요. 평생 봉사하며 살아온 주인공이, 갑작스레 터진 문제로 최악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신의 도움을 받았던 이웃들이 그를 위기에서 구해주며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는 영화입니다.



라이오넬 베리모어(사진 위)는 이 영화에서 악역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이 사람의 조카 손녀가 드류 베리모어(아래)입니다. 드류 베리모어 입장에서는 큰할아버지가 되죠. 그의 동생 존 베리모어가 드류의 친할아버지구요. 존 베리모어 또한 당대의 미남 배우로 명성이 대단했다고 하네요. 베리모어 가문은 배우 집안으로 유명하죠.

아 있는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그는 사고를 당한 후에도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라디오 드라마 '크리스마스 캐럴'의 스크루지로 출연했습니다. 영화 '멋진 인생'에서 악독한 졸부 포터도 그것에 연유해서 캐스팅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영화에서도 스크루지 영감의 뉘앙스가 많이 묻어납니다.

라이오넬 베리모어의 이야기를 쓰고 있자니 저도 이 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by 삶은녹차 teatime24.egloos.com

40년간 영화계에 몸담으며 아카데미 남우주연상까지 수상한 라이오넬 베리모어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말년을 휠체어에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에 앉아서도 6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물론 모두 앞

지난 한 달 동안 세 명의 코넬대 학생이 자살을 했다. 깨끗하고 한적한 도시 이타카가 코넬 학부생에게는 숨 막히는 도시였을지 모른다.

코넬에 와서 다른 아이비리그 학교들과 코넬이 어떻게 비교되는지들은 바에 의하면, 코넬은 아이비리그 중 들어오기는 가장 쉽지만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기는 가장 어려운 학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전에 프린스턴과 코넬 하키 경기에 갔을 때 코넬 학생들이 프린스턴 하키팀을 향해 "학점 인플레이션 학교!" (Grade inflation school!)라고 야유하는 모습을 봤다. 마치 코넬의 짜디 짜 학점에 화풀이라도 하듯.

정작 코넬 주변에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만한 대도시가 없다. 자식이 공부 이외의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곳에 보내고 싶을 때, 미국 북동부 부모들이 보내는 학교가 코넬이다. 가장 가까운 도시인 뉴욕과 토



코넬대 학생이 이타카 캠퍼스 내 협곡의 현수교를 걷고 있다. Ithaca=AP/newsis

론토까지 5시간, 워싱턴 DC까지 6시간이나 걸린다. 한 시간의 짬도 내기 어려운 대부분의 코넬 학부생들은 도시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대신 심리상담원들을 찾곤 한다. 조교인 내 오피스에 찾아와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도 꽤 보았다. 가끔 항우울제 약을 복용한다는 학부생들도 있었다.

예전에 미국 상위 대학 학부생들의 주의력 결핍 장애약 사용 비율이 70%를 넘었다는 기사(Chronicles of Higher Education)를 읽은 적이 있다. 기사에 따르면 상시 복용하는 학생도 25%나 된다. 학부생 100

명 중 25명이 시험기간마다 이 약을 먹는 것이다. 일반인이 주의력 결핍 장애약을 먹으면, 6~8시간 정도를 전혀 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테면 스타크래프트 마린이 '스팀팩'을 맞은 것과 비슷한 효과다.

겉으로는 자신만만해 보이는 미국 명문대 학생들이 마음속으로는 애처로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학업이 주는 스트레스로 삶을 포기하기에 이른 세 코넬 학생들, 삼가 명복을 빕니다. by 몽키 piniapple.egloos.com

편집자 주

AP통신에 따르면 코넬에서는 이번 학기에만 10명이 숨쳤고 6명이 자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스킵 총장은 교내 신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배우라"는 전면 광고를 실으며 자살방지에 나섰습니다. '자살 다리' 현수교에는 직원들을 배치하고 캠페인 스티커를 붙였다고 합니다.

Essay

방귀·코딱지 파기 세계 신기록 남친

연애를 하고 있다. 작년 2월 처음 시작된 만남은 이제 1년이 넘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마주잡은 두 손의 체온만큼이나 따뜻하다. 32살 남자와 25살 여자의 이야기다.

by 정신줄 tnwss.egloos.com



남자는 깨어있는 지식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너무 관에 박힌 인물이다. 남성우월주의 마초가 맘속에 응골차게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여자가 왕좌 증×100만 파워를 부려도 곳곳이 견뎌내는 인내력의 소유자.(본인은 신경을 안 쓸 뿐이라고 한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 -_-;) 또 웬만한 일은 화를 안낸다. 주5일제 직장에 다

니면서 주말에도 밥 먹듯 출근하느라 여자에게 핀잔 아닌 핀잔을 자주 듣는다. 왕 방귀쟁이에 코딱지 파기 세계 신기록 보유자이지만 항상 여자만 바라보고 산다.

여자는 남자를 처음 만날 때만 해도 가벼운 투명화장 정도는 하고 다녔다. 지금은 귀여운 탐구명 하나하나 숨털 하나하나까지 남자에게 보

여주고 있다. 육하는 성격을 주체하지 못해 잘 놀라지 않는 남자마저 '깜짝이야~' 할 정도로 화를 낸다.

다른 성격의 두 사람이지만 눈곱만큼의 공통점은 있다. 여행과 식도락(?). 정말 맛있는 것 앞에선 모처럼 마음이 하나가 된다. 취미생활이 맞다는 것은 유쾌하고 즐거운 일. 올해도 산뜻한 여행을 준비 중이다.

Book

청춘을 쓰던 윤대녕 세월을 이야기한다

벌써 15년째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끝난 뒤에 남는 감정.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에는 윤대녕의 소설을 읽었습니다. 삼십 대 중반이 되니, 이제는 그런 감정도 사라지는군요.

윤대녕이 신작 소설집 '대설주의보'(문학동네)를 펴냈습니다. 누군가 그랬죠. 윤대녕을 읽기 위해선 여

성성과 유랑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소설가 배수야가 윤 씨의 산문집 뒤 표지에 남겼던 말입니다. 어딘가로 떠난 남자는 그곳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쓸쓸해합니다. 제 이십대에 와 닿았던 이야기들입니다.

윤 씨의 소설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나왔던 '제비를 가르다(창비)' 부터입니다. 그도 나이를 먹어가나 봅니다. 낯선 여행을 떠돌던 영혼은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옛 연인 대신 가족과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담배 연기 자욱한 청춘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소설 '대설주의보'에선 두 남녀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20분이면 충분할 거리를 두고 12년 동안 서로를 찾아 헤맸습니다. 폭설로 두 시간이나 가야 한다고 투덜거리는 택시기사의 말 속에서 작가는 인연의 끈을 누르던 세월을 이야기합니다. 윤대녕은 작가의 말을 통해 "내 생에서 모종의 변화가 진행되던 시기의 심정을 담았다"고 합니다. 최승호 시인의 시 '대설주의보'에서 영감을 받았다는군요. by 지노 paran1109.egloos.com